

까사미아로 번진 ‘라돈 공포’... “주먹구구식 수거·교환”

1만2천개 판매된 토퍼·베게서 라돈 검출 소비자 리콜대상 인지 못하는 등 수거 한계 대진침대, 두 달 넘도록 미수거 제품 산적

대진침대에 이어 신세계 계열사인 까사미아의 일부 매트리스 제품에서도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됨에 따라 일상 생활에서 ‘라돈 침대’ 공포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라돈침대 문제가 불거진 지난 5월 중순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진침대 관련 제품을 ‘한 달내 수거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두 달이 훌쩍 넘도록 여전히 많은 제품이 수거되지 못해 집에 고스란히 방치하고 있는 소비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관련 제품을 판 대진침대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전화번호를 3개 공시해 상담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 받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소비자는 반납하지 못한 라돈침대를 처치하기 곤란해지자 아예 라벨만 떼고



까사미아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그대로 내놓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원안위는 까사미아가 판매한 토퍼 세트(토퍼+베게)에서 안전기준

을 초과한 라돈이 검출돼 행정조치를 명령했다. 대진침대가 불을 붙인 라돈 공포가 까사미아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다.

토퍼란 주로 침대 매트리스 위나 바닥에 까는 두께 10cm 미만의 매트를 말한다. 이번에 라돈이 검출된 제품은 까사미아의 ‘까사온 메모텍스’로 2011년 당시 CJ오쇼핑을 통해 총 1만2395개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까사미아측은 원안위의 권고에 따라 바로 관련 제품 전량 회수에 들어갔다. 제품이 이후 단종돼 현재는 판매되지 않고 있지만 판매된 제품이 모두 수거 대상이다.

아울러 까사미아는 회수 제품에 대신 안전이 확인된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본사에 자체 물류팀이 있고, 직원들까지 총 동원해 가급적 빠르게 제품을 수거할 계획”이라며 “수거 기한도 따로 정해놓지 않고 신속하게 리콜을 진행한다는게 회사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관련 제품은 판매 당시 소비자값이 약 35만원이 었지만 교환할 제품은 가격이 60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비자가 교환이 아닌 환불을 원할 경우엔 관련 3개 모델 가격에 따라 20만~40만원 사이에서 현금으로 돌려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사와 판매업체인 흡소피아 등을 통해 수거한 제품을 위해 현재 전국에 4곳의 물류창고도 확보해 놓은 상태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관련 제품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수거에 한계를 드러내 반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총 31개 매트리스 모델이 리콜 대상인 대진침대의 경우 문제가 불거진 5월부터 수거에 들어가 지금까지 4만1000여 개가 수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납한 제품은 충남 천안 본사와 당진 야적장에 쌓여있는 상태. 하지만 여전히 7000여개는 수거되지 못한 상태다.

2007년에 대진침대 관련 모델을 구입했다는 서울의 유모씨는 “한 달 반 전에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지금까지 회사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통화가 되질 않아 집에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라면서 “원안위에 민원도 넣었지만 접수 후 처리기한이 연장됐다는 답변만 왔을 뿐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셀트리온, 램시마 美 배지특허 소송 승리

셀트리온이 미국 ‘램시마(판매명 인플렉트라)’와 관련된 마지막 특허 침해 소송인 안센의 배지특허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0일 미국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안센이 제기한 램시마의 배지 기술 침해에 대한 균등침해 주장이 부당하며, 셀트리온은 안센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안센은 2015년 3월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 제조에 사용하는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이 포함된 배지에 관한 미국 특허를 침



해했다며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이번 판결로 마지막 남아 있던 안센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며 파드너사인 화이자(Pfizer)를 통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램시마의 본격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인용 기자



중소사랑나눔재단-우신티그먼트, 라오스DEM 이재민 성금 4000만원 전달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과 우신티그먼트는 라오스 DEM 붕괴사고 이재민을 위한 성금 4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지난해 포항지진 등 국내 재난피해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16년 에콰도르 지진, 2015년 네팔 지진 등에도 성금을 지원하며 국제구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왼쪽부터)대한적십자사 박경서 총재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서석홍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벤처·스타트업 선후배 8월 말 제주서 모인다

벤처기업협 ‘18회 벤처썸머포럼’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을 일구는 선·후배 기업인들이 8월 말 제주에서 뭉친다. 벤처기업협회는 8월29일부터 31일까지 2박3일간 제주 하얏트리조트에서 ‘제18회 벤처썸머포럼’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벤처썸머포럼은 벤처기업협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하며 한국여

성벤처협회, 제주테크노파크, KDB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가 공식 후원한다. 벤처썸머포럼은 선배벤처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이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 보유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해 미래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혁신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참여를 원하는 기업인은 오는 8월16일까지 협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프랜차이즈 창업, ‘자체 공장’ 확인하셨나요?

동일한 맛·품질 위한 핵심요소
식재료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편리성·위생 우수해 신뢰 제고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맛과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이다. 이를 충족하려면 각 매장 별로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이 필수다.

31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리제품 생산시설(CK), 물류센터 등 인프라 확대에 나서고 있다.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은 물론 식재료의 위생, 점주들의 편리성, 새로운 수익 창출까지 고려하기 때문이다.

‘한촌설렁탕’과 ‘육수당’을 운영하는 이연에프엔씨는 최근 충북 오송바이오폴리스 지구에 1만6529㎡ 규모의 CK공장 설립에 들어갔다. 이 공장은 현재 운영 중인 충북 음성 공장에 이은 2번째 공장으로서, 최근 한촌설렁탕과 육수당 가맹점수가 증가하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산과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이연에프엔씨는



곰창고 공장.

/곰창고

오송CK공장이 완공되면 매장에 보다 높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고 공장에서 생산되는 육수 등 식재료 유통을 통해 기업 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과파존스는 하반기 품질관리센터 겸 물류센터인 ‘QCC’를 확장한다. QCC는 전국 300개 매장의 배달물량 공급이 가능한 규모로 지어진다. 파파존스 QCC는 ‘세계 어디서나 피자 맛이 같아야 한다’는 설립자 존 슈내터 회장의 이념을 지키고, 안정적인 가맹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곰창 프랜차이즈 ‘곰창고’는 경기도 광

주에 육류 공장과 소스 공장을 현재 운영 중이다. 육류 공장은 곰창고의 모든 육류를 가공하는 곳으로, 곰창뿐만 아니라 모든 재료를 사람의 손으로 손질하는 등 세심하고 꼼꼼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소스 공장 역시 소스를 만들고 연구하고 있다. 곰창고는 공장에서 깔끔하게 손질된 곰창고 소스를 안전하게 진공 포장된 상태로 각 매장들에게 전달하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가맹 점주들이 쉽게 곰창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외식 기업 ‘디딤’도 소스와 양념육류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보유, 전국의 직영매장과 가맹점주 매장에 직접 재료를 납품하고 있다. 디딤의 자체 공장은 위생에 특히 신경 쓰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 전달을 위해 지난 2008년 HACCP 인증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공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식재료의 차별화, 메뉴 개발, 서비스 강화를 이룰 수 있게 돼 마포갈매기 등 프랜차이즈와 백제원, 도교하나 등과 같은 직영매장 등 다양한 브랜드를 론칭해 새로운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동아ST 반부패 국제 인증 ‘ISO 37001’ 획득

동아ST는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ISO 37001은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시하는 표준에 따라 운영하는 리베이트·금품·뇌물 방지를 위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다. 모든 임직원에게 부패방지, 윤리경영을 위한 역할과 의무가 부여된다.

ISO 37001 인증을 위해 동아ST는 지난해 11월 내부심사원 24명을 선정하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과 구축을 위한 부패방지위원회를 구성했다. 각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뇌물 리스크 식별 및 평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운영프로세스 점검 및 관리, 교육훈련 및 문화확산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동아ST는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지난 4월 1단계 서류심사, 23일부터 25일까지 2단계 현장심사를 거쳐 31일 ISO 37001 인증을 받았다. ISO 37001은 인증 후 1년 내 사후심사를 받게 되며, 3년 후 갱신심사를 받는다.

동아ST는 2007년 업계 최초로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및 자율준수평가와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2010년 CP팀을 신설한 이후 2014년 조직을 CP관리실로 확대하고 대표이사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했다. 2015년에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회 CP등급 평가에서 ‘AA’ 등급을 받는 등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박인용 기자

이대목동병원 공공보건의료 의사직 임상교육 사업자로 선정

이대목동병원은 공공의료사업센터가 공공보건의료인력 의료임상교육 의사직 교육과정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공공의료사업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간호직 임상교육과정을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민간 의료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의사직 임상교육까지 맡아 진행하게 됐다. 센터는 의사직 임상교육을 올해 10월 중 실시할 예정으로, 급·만성 창상관리의 주제로 전문적인 창상관리 지식 및 관련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워크숍 등 다양한 참여식 교육과정으로 구성해 진행할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